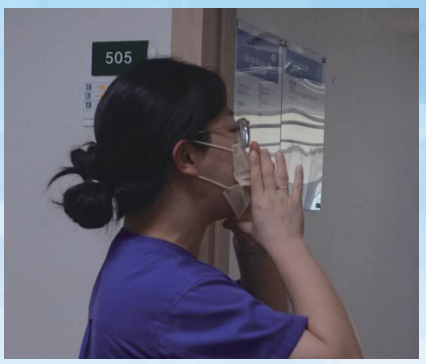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 Monthly
# 나눔과행복소식 (42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5.10

## 미션
MISSION

#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 핵심가치
CORE VALUE

###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2025년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 본원 QPS팀 우수상 수상 (10.30)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의료기관인증원" 공동 주최의 공모전에서 우리 병원이 '환자안전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였습니다.

QPS팀 김경애 부팀장님이 대표로 30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에 우수사례 발표 및 상장과 상금을 수여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수상작은 평소 우리병원이 실천해온 낙상예방활동의 지표 분석 및 개선 활동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그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포상금: 100만원)

이 성과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QPS팀의 환자 안전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과 심도 있는 분석, 그리고 개선 활동이 "전국구"의 큰 병원들과 경쟁하여  우수모범 사례로 공식 인증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우수상 이상은 모두 상급병원, 종합병원임)

무엇보다 이 모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나행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큰 밑거름이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자랑스러운 QPS팀에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병원의 빛나는 발걸음에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낙상예방물품 지원 의료기관 선정 (10.15)

우리병원은 회복기 재활병원으로서 근골격계 질환 분야가 추가되면서, 대퇴, 골반, 고관절 골절 수술 후 30~60일 단기간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단기간 내 집중적인 보행 연습을 통해 일상 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병동 내에 이동 보조 수단인 워커(Walker)가 충분히 비치되어 있지 않아(사실 없었구요 기증받은 오래된 워커가 한대 있었을뿐~), 초기 보행 연습 시 환자분들의 안전과 이동 편의성에 아쉬움이 있었고 환자분들의 안전한 보행 연습과 병동 생활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조기구 지원 공모전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골격계 환자분들이 주로 입원하여 생활하시는 통합생활동(5생활동과 6생활동)에 각 1대씩, 총 2대의 워커를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 안전은 준비에서 시작되는
# 합동 소방훈련 (10.20)



이날 오후에 5생활동에서 직원과 관리사무소측이 참여한 합동 소방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환자 및 내원객 대피 유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신속한 판단과 협조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또한 해운대소방서 소방관이 참관한 가운데 실전 대응 훈련이 이어졌고, 훈련 후에는 9층 소망정원에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실습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직원이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슬기로운 재활생활 (10.15)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 (재활코치팀 서인석 주무)

참여자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6회기 교육으로, 재활코치팀 서인석 선생님께서 퇴원 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에 대해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동 편의를 위한 보조기기(수동/전동 휠체어, 전동리프트/장애인 차량 대여), 일상생활, 의사소통, 자동차 보조기기의 종류를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필요한 보조기기를 이용함으로써 신체적 피로, 부담감을 낮추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자존감 향상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준비된 퇴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안내 및 주거환경개선
## (사회사업팀 이지혜 부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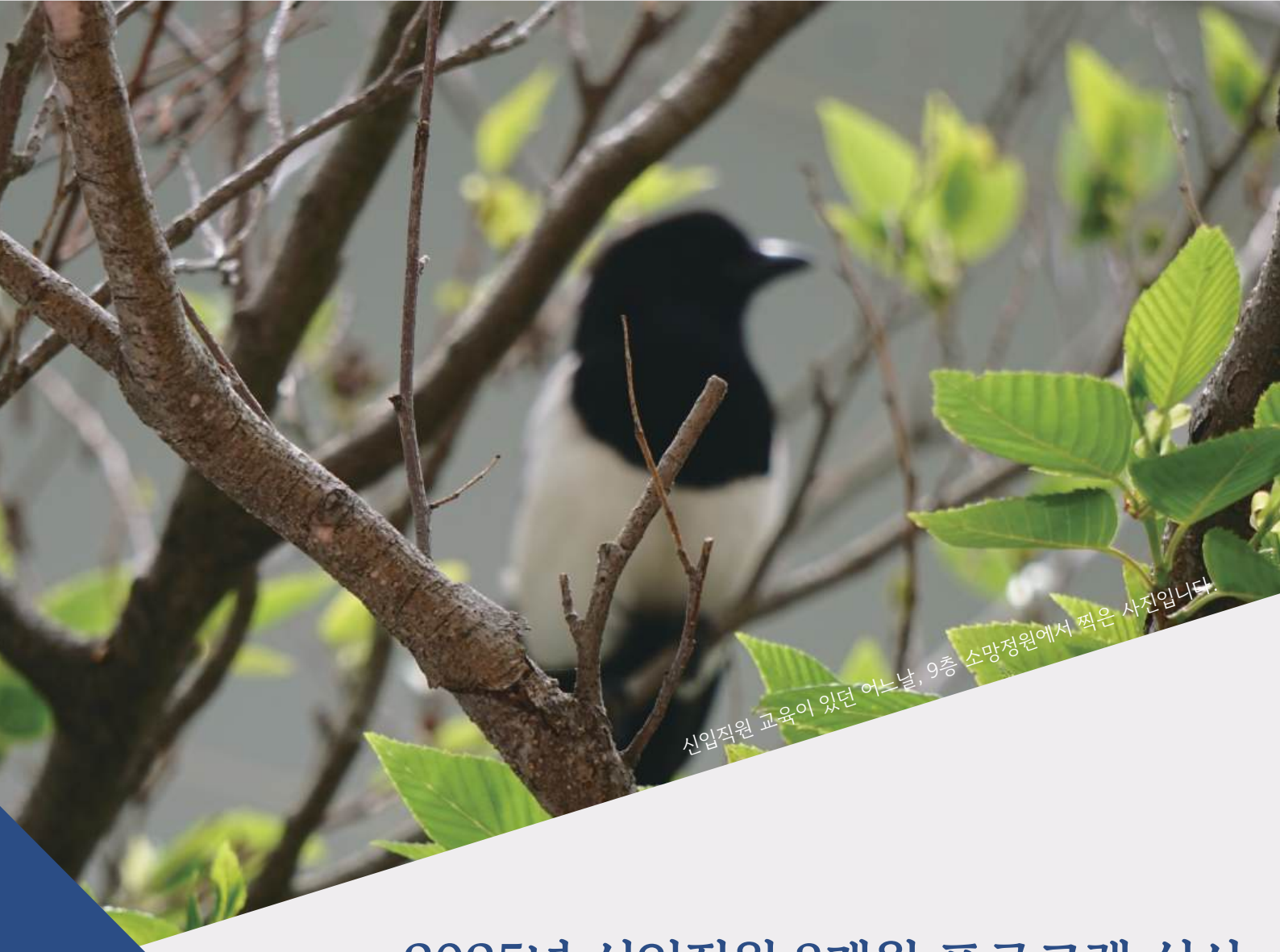
서인석 선생님의 강의에 이어 진행된 2025년 슬기로운재활생활 교육의 마지막 시간에는 사회사업팀 이지혜 부팀장님께서 참여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와 가족의 욕구, 상황에 따라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예시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다양한 복지제도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주거, 돌봄, 이동,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귀의 첫걸음, 가정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공유함으로써 준비된 퇴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는 재활치료 여정에서 질병과 장애에 대한 이해, 인식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장애수용 과정을 함께하며 일상의 행복을 빠르게 되찾아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재활프로그램 '슬기로운재활생활'에 참여하여 재활치료 의지를 다져나가고 준비된 퇴원을 위한 과정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입직원 교육이 있던 어느날, 9층 소망정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 2025년 신입직원 3개월 프로그램 실시

신입직원교육은 신입직원이 해나행의 조직문화와 비전을 이해하고,
필요한 업무 역량을 갖추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첫 걸음입니다.
신입직원교육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총 세 번의 만남으로 진행됩니다.

- 신입직원온보딩 1차(1개월차) - 신입직원교육
- 신입직원온보딩 2차(2개월차) - 입사동기 공감만남
- 신입직원온보딩 3차(3개월차) - 수습수료식



## 수습수료식 “함께 뿌리내림”

# 6기 신입직원 온보딩 3차 (10.24)

▷참 석 자: 간호팀 - 이채원
재활치료2팀 - 박연주
브랜딩실 - 박주영
재무팀 - 이현승, 박아람
시설팀 - 김승욱

2025년 6기 신입직원들이 수습기간을 마치고 당당히 수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수료식은 지난 시간 동안의 노력과 성장을 함께 축하하며, 서로의 걸음을 응원하는 따뜻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신입직원들은 병원의 미션과 핵심가치를 배우고, 각 부서에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 ‘나눔과 행복’의 의미를 몸소 실천해왔습니다.

수료식에서는 교육과정을 함께한 동료들과의 추억을 나누며,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6기 신입직원들이 무한한 성장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밖으로한걸음씩 (09.23)

퇴원하기 전에 참여자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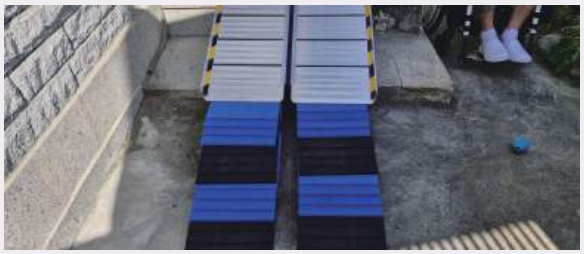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집 대문으로 올라가는 경사였습니다. 현재는 다소 경사가 있지만, 지속적인 휠체어 밀기 연습을 하신다면 올라가는데 도움 없이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 내부로 들어가는 계단이 있어 추후 공사를 계획 중이셨는데, 임시적으로 보호자와 함께 이동식 경사로를 이용해 휠체어로 올라가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집 현관문의 턱도 보호자분께 안전하게 미는 요령을 설명해드리며 넘어가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집 안 환경 중 화장실은 참여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문짝을 제거하든 공간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참여자분께서 경사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퇴원이후 일상생활 위한 주거환경개선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응원합니다.













# 스포츠체험 (10.17)

퇴원을 앞두고 있는 참여자분이 퇴원 이후에 사회활동 및 대인관계 향상과 일상 속 좋은 취미활동이 되어 줄 스포츠를 찾기 위해 사격장을 방문하여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를 체험해 보는 중에 있는 참여자분은 즐거운 체험이 되었다고 하셨으며 스포츠 중에 본인에게 맞는 스포츠를 통해 일상복귀 이후에도 활동을 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10.17)

낮병동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매달 '출석왕'과 '자립왕'을 선정하여, 참여자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립을 향한 멋진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출석왕에는 꾸준한 출석과 성실한 참여로 모범을 보여주신 한○수님과 하○조님이 선정되었으며, 자립왕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도전하며 성장해온 배○철님과 김○희님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식에는 김완호 원장님과 담당 언어치료 선생님도 함께 자리하여 수상자들을 직접 축하해주셨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행사장은 웃음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출석왕'과 '자립왕'은 단순한 상이 아니라, 꾸준함과 성장을 통해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매일의 출석은 자신의 의지와 약속을 지켜내는 작은 승리이며, 자립은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는 큰 걸음입니다

#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33대 꿀꺽왕 시상식 (10.23)



제33대 명예의 꿀꺽왕 강희숙님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김완호 원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자리가 더욱 뜻깊고 빛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강○숙님께서는 직접 준비하신 다과로 선생님들을 맞이해 주셨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래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말씀에 현장에는 따뜻한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박수 한 번, 짧은 응원의 한마디가 참여자분들께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하파트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꿀꺽왕'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겠습니다. 곧 이어질 또 다른 꿀꺽왕의 소식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재활 2팀과 사회사업팀이 함께하는

# 그룹치료 프로그램 (10.25)

사회사업팀이 진행하는 그룹치료 여섯 번째 시간에는 '모자이크 타일 냄비받침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와 보호자가 함께 모여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 1호는 무엇인가요?'라는 아이스브레이킹 질문으로 낯선 분위기를 깨고 본격적인 공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모자이크 타일 조각을 각자의 취향에 따라 조합해 나만의 패턴을 디자인하고 원목판에 목공풀을 바르고 타일을 하나씩 붙이는 과정을 통해 나만의 냄비받침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냄비받침을 원목 거치대도 직접 조립하였으며 "집에서 쓰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다.", "그룹치료에 오길 참 잘했다. 다음에도 참여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성취감과 만족감을 보이셨습니다.

모두 함께 공예에 온전히 몰입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으며, 빠르게 작업을 마친 참여자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 장애청년드림팀 영국 연수 관련 방영




장애청년드림팀이란 2005년 시작된 국내 최초 장애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써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의 국제사회 도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벌써 20주년을 맞이하였고, 올해 초 20기 단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20기 드림팀에 본원 재활치료2팀 탁현우 주무님과 정예원 선생님이 최종합격하였고, 오리엔테이션과 발대식을 거쳐 본격적인 해외 연수 활동을 시작,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 일부가 KBS '사랑의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에 '색다른 도전 – 춘봉, 휠체어 럭비 강국 영국에 가다' 편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방송 다시보기로 연결됩니다. ▲
(31분 4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 2025년 3분기 근접오류 보고 우수 부서 선정!

★★★

2025년 3분기 최고의 환자 안전 지킴이

## 7층 생활재활센터




### 근접오류 보고 TOP 5



| | |
|---|---|
| 7층 생활재활센터 | 6건 |
| 6층 생활재활센터 | 5건 |
| 재활치료1팀 | 3건 |
| 8층 생활재활센터 | 2건 |
| 5층 생활재활센터 | 1건 |

**근접오류는 비난이 아닌 배움의 기회입니다.**

환자 안전도 지키고! 포상도 받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 2025년 10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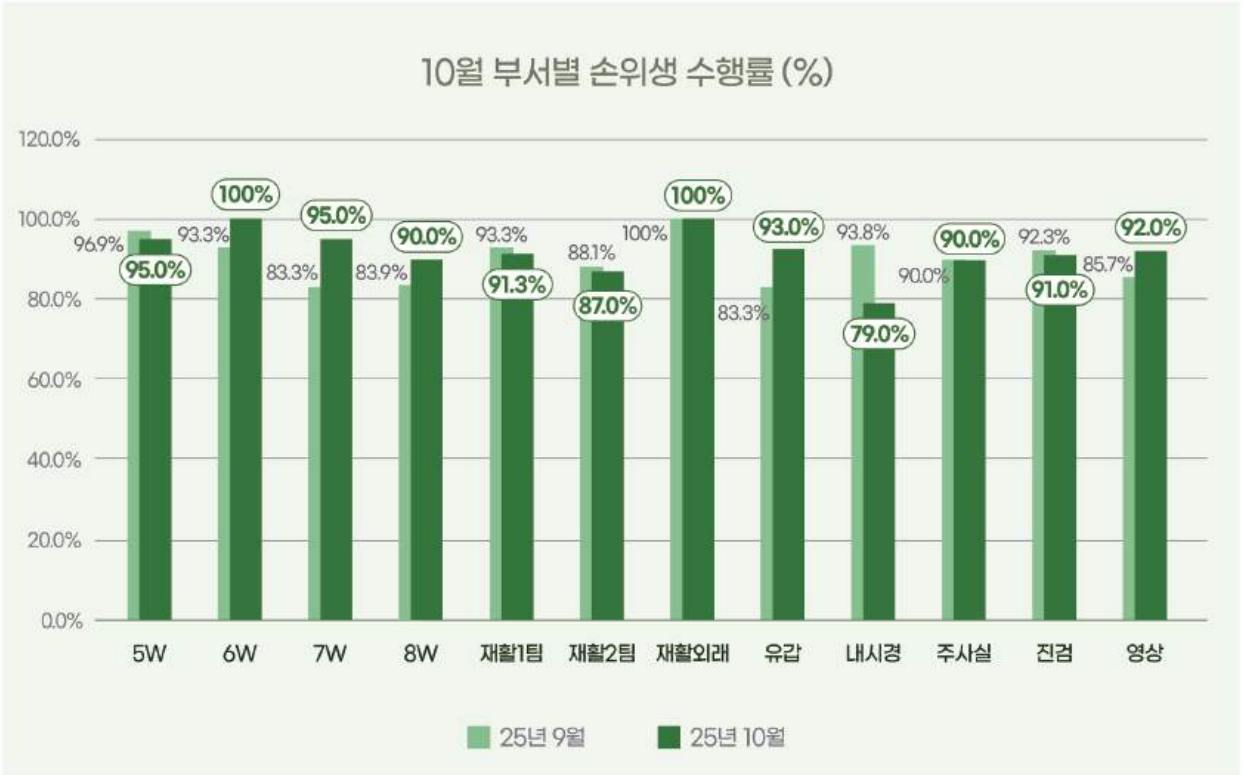
##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 | |
|---|---|
| 모니터링 **기간** | 2025년 10월 01일 ~ 2025년 10월 31일 |
| 모니터링 **장소** | 환자 접점 부서 |
| 모니터링 **방법** |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
| **손위생 수행률**(%) |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
| 모니터링 **결과** | 2025년 9월 결과와 비교 분석 |

## 2. 지표 결과

| 목표(%) | 전체 관찰건수(건) | 수행건수(건) | 결과(%) | 전 분기 증감률 |
|---|---|---|---|---|
| 90 | 198 | 182 | 92.0% | + 2.0% |

##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 웹소설 작가의 재활과 회복의 서문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던 이○○님은 신작 집필 중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본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6년간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이어왔으나, 적성 문제로 퇴사 후 장편 판타지 로맨스를 출간하며 웹소설 작가로 전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수입과 카드채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가던 중 갑자기 쓰려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민간보험 진단금으로 일시 해결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치료와 주거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사회사업팀 개입이 필요하였습니다.

사회사업팀은 가족간병을 하고 있는 어머니와 초기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고령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다소 어려워, 서울에 거주 중인 여동생과 추가 유선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동생은 질병 발병 이후 금융 및 보험 관리를 맡아왔으며, 이○○님의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이○○님은 단독가구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되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없었지만 매월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어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자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은 주거지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원 사회사업팀은 LH영구임대 및 전세임대, 공공임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이 이뤄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여동생은 복지정보 수집과 제도 이해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퇴원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에도 함께하였습니다.

## 조금씩 쓰기를 위한 준비를 하며

이○○님은 40대의 젊은 나이에 뇌출혈로 인한 신체적·인지적 장애를 겪게 되었고, 약 1년 6개월 간 본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초기보다 높은 호전도를 보이며 현재 간단한 질문에 대한 이해 및 응답이 가능하고, 외부 이동 시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지만 생활동 내에서는 지팡이와 보호자 1인의 도움으로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는 식당일을 중단한 채 간병을 전담하였고, 서울에 거주 중인 여동생은 육아휴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 보호자로서 유선 상담, 정보탐색, 행정 절차지원, 제도 연계 전반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사회사업팀은 이○○님과 가족이 현실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재활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약 10차례 이상 여동생과 유선 상담을 통해 시기별 제도 정보와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발병 6개월 경과 후 장애등급 신청을 통해 뇌병변 장애(심한장애)를 인정받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공공임대주택, 지역사회 복지자원 등과의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퇴원계획 수립 시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주거 안정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으나, 사회사업팀이 안내한 LH임대아파트 정보로 전포동 인근의 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었고, 이로써 주거 비용 부담도 완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임대아파트 내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도 신청을 통해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낙상 위험을 줄이는 환경 조성도 병행하였습니다.

# 사회복귀지원이야기 스물한 번째 이야기

## 사회사업팀에서 준비하는 우리병원 사례입니다.

21

이○○님의 가장 큰 욕구는 퇴원 이후에도 재활치료를 지속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지역 장애인복지관의 물리치료 서비스 대기를 1년 전부터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퇴원 후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본원 외래 치료 역시 병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퇴원 이후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하였고, 초기 산정된 활동지원 시간은 90시간이었으며,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자택 복귀 이후에도 안정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진구 재가의료급여서비스 연계를 통해 밑반찬 배달, 돌봄 서비스, 이동지원 등 지역 내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님은 퇴원 후 전포동 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계시며, 현재 본원 외래치료와 지역 장애인복지관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서의 재활운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치료와 일상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족과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해 온 지난 시간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삶의 기반을 다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사회사업팀은 이○○님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일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자원과 제도를 연결해 나가며,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 참여자 주요 사항

<table>
<tr><td rowspan="6">참여자 사항</td><td>대상</td><td>성별</td><td>나이</td><td>보호유형</td><td>대상질환</td><td>발병일</td><td>입원기간</td></tr>
<tr><td></td><td>여</td><td>40대</td><td>기초생활수급자</td><td>뇌출혈</td><td>2023.09.25</td><td>2024.01. ~ 2025.09.</td></tr>
<tr><td>가족사항</td><td colspan="6">■ 가구형태 : 독거<br>■ 주보호자 : 모, 여동생<br>■ 가족 지지체계 높음</td></tr>
<tr><td>심리·사회적 사항</td><td colspan="6">■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는 강하나 돌봄공백에 대해 걱정함</td></tr>
<tr><td>경제적 사항</td><td colspan="6">■ 개인보험 : 있음<br>■ 기초생활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td></tr>
<tr><td>주거사항</td><td colspan="6">■ 주거형태 : 오피스텔<br>■ 주거환경 : 현관 화장실 외 문턱 없음. 안전 손잡이 설치 완료</td></tr>
<tr><td>문제사항 및 욕구</td><td colspan="6">■ 주거비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감<br>■ 참여자 독립생활 시 안전 및 일상생활 관리에 대한 우려<br>■ 퇴원 후 재활치료 연속성 확보</td></tr>
<tr><td rowspan="3">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td><td>사회복귀계획</td><td colspan="6">■ 퇴원경로 : 자택(LH임대아파트)<br>■ 치료계획 : 본원 외래, 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br>■ 이동수단 : 부산장애인콜택시(두리발), 대중교통(지하철)</td></tr>
<tr><td>참여 프로그램</td><td colspan="6">■ 상담 : 참여자 및 보호자 수시 상담<br>■ 정서지지 프로그램 : 그룹치료, 웃음치료 PG</td></tr>
<tr><td>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td><td colspan="6">■ LH임대주택 : 공공/영구임대, 전세임대 등 정보 제공<br>■ 활동지원서비스 연계<br>■ 장애인복지관 : 물리치료 및 여가활동<br>■ 부산진구 재가의료급여사업 : 돌봄, 밑반찬서비스, 이동서비스 지원</td></tr>
</table>

#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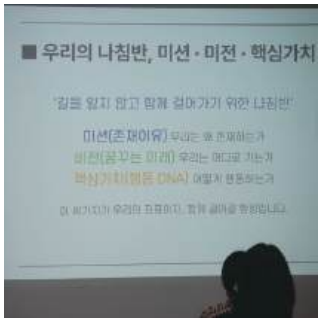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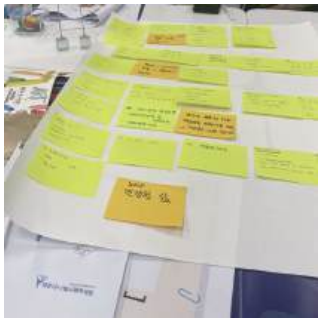
우리가 함께 만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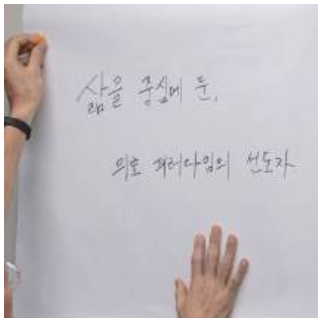
# 2030 비전









2030 비전 '삶 중심 의료를 실현한 선도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가족 여러분,
2030년 비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삶 중심 의료를 실현한 선도병원”**

이 비전은 앞으로 5년간 우리 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을 통해 새 비전에 담긴 의미와 배경을 함께 살펴보고, 왜 이 비전이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이루어나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이유

우리 병원의 미션(Mission)은 “사람을 봅니다”입니다. 이는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우리는 사람을 우선으로 바라본다”는 뜻으로, 병원의 모든 활동과 가치 판단의 근본에 사람을 두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러한 미션을 바탕으로 우리 병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습니다.

- **직장으로서:** 직원들이 삶의 가치를 실현하며 가장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삶터
- **병원으로서:** 사람을 중심에 둔 건강한 의료를 실천해가는 병원
- **기업으로서:** 행복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병원

미션은 병원의 존재 목적, 즉 항상 지향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성과 철학을 의미하며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비전(Vision)은 미션을 토대로 앞으로 약 5년 내에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이며 미래에 달성할 모습을 그린 청사진**입니다. 미션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얻어낼 구체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정 변화하고자 한다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딱 떨어지게 설명한 자기만의 한 문장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비전은 미션과 달리 문구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가능해야 합니다. 추가 설명 없이도 구성원과 외부인이 그 뜻을 알 수 있는 명료하고 구체적인 미래상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 병원의 미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는 조감도와 같아야 하며, 시간 범위도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병원은 지난 세월 동안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이라는 2025년 비전 아래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성장해왔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올 5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30 비전을 만들기 위해 병원 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우리 미션의 정신과 시대적 흐름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팀장 투표, 전 직원 투표,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심층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삶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 병원의 미션인 “사람을 봅니다”라는 가치를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이 가치를 비전으로 내세움으로써, 앞으로 모든 구성원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힘을 모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비전 문구가 담고 있는 핵심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여는 것입이다.
그리고
삶을 이루는 건
사람과 사랑입니다.

## ■ 2030 비전의 핵심 의미: '삶 중심 의료를 실현한 선도병원'

### 1. 왜 '삶 중심 의료'인가?

우리 병원이 지향하는 "삶을 중심에 둔 의료"란, 기존의 치료(질병) 중심 의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자의 삶 전반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확장된 의료 개념입니다. 의료의 목표를 단순히 질병 치료나 생명 연장에만 두지 않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과 존엄성, 나아가 자립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삶에 중심을 둔"은 우리 병원의 미션 "사람을 봅니다"를 가장 명확하게 구체화한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계에서도 이제 단순한 치료 기술 발전만으로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패러다임을 기술·질병 중심에서 환자의 삶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환자 중심 의료(patient-centered care)나 전인적 돌봄의 추세와 맥락을 같이합니다. 결국 **"삶 중심 의료"로의 전환은 국내외 의료계의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병원의 역할입니다.

'삶 중심'의 실천적 의미는 이 문구는 모든 판단과 행위의 출발점이 환자의 '삶'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진료 방침을 정할 때, 병원 시스템을 운영할 때, 나아가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 판단이 환자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를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겠다는 명확한 다짐입니다.

### 2. '실현한'

"실현한"이라는 표현은 이 비전이 단순한 지향점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낼 목표**임을 강조합니다.

비전은 우리 병원이 "2030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그린 미래상이며, "실현"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 미래상이 실제로 구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5년 내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실현한" 비전은 우리의 노력으로 달성할 도전 과제를 분명히 각인시키고, 환자와 사회에는 우리 병원이 행동을 통해 약속을 이행하는 기관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 3. '선도병원': 새로운 길을 여는 리더

"당신의 행동이 타인들로 하여금 더 많이 꿈꾸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영감을 불어 넣는다면 당신은 분명 리더다."

비전 문구 '삶 중심 의료를 실현한 선도병원'에서 '선도'는 단순히 남들보다 앞서가기만 하는 존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先(먼저 선):** 앞서 나아가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
**導(인도할 도):** 이끌고 길을 안내한다는 뜻

> '길'이란
> 그 '향'하는 바가
> 먼저 있고 나서
> 다시 무수한 발걸음이
> 다지고 다져서
> 이루어지는 것임을
> 잊지 말아야
> 하겠습니다.

즉 선도란 "먼저 새로운 길을 열고, 뒤따르는 이들을 이끌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가는 이미 존재하는 길을 잘 걷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도입니다.

우리 병원 비전 속 '선도'는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수준을 넘어, **의료의 철학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를 가리킵니다. 이는 곧 치료를 넘어 각 환자에게 맞는 진정한 회복에 이르는 의료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우리의 선언입니다.

이처럼 "삶 중심 의료를 실현한 선도병원"이라는 문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병원이 앞으로 어떻게 환자를 바라보고 의료 서비스를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 병원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수준을 넘어, **"환자의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이자 "삶을 중심에 둔 의료철학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이 이 비전에 녹아 있습니다.

## ■ 현주소와 향후 5년, 우리의 과제

우리 병원은 이러한 "삶 중심 의료"를 향해 이미 조금씩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재활의료, 갑상선유방, 내과 검진 분야에서의 전문 역량 강화와 환자와의 신뢰도 향상 등, 삶 중심 의료에 한 걸음 다가선 긍정적인 신호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2025 비전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내부에도 "삶 중심 의료"라는 철학이 온전히 뿌리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환자의 삶을 함께 본다"**는 가치가 스며들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2025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한 번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 길게 보면서,
> 먼길을 함께
> 걸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5년, 즉 2030년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명확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삶 중심 의료"라는 철학을 우리 병원의 문화와 시스템에 더욱 깊이 정착**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이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선도자"라는 마음으로 '환자의 삶을 중심에 둔 의료'를 실천해 나갈 때, 각자가 만들어가는 노력과 작은 변화들이 큰 물줄기로 모여서, 지역사회와 의료계에 '삶 중심 의료를 실현한 선도병원'으로 2030년에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피秋게더. #01

# 달빛 아래 추석음악회 (10.01)

10월 1일(수) 저녁, 4층 재활치료실에서는 '해피秋게더 달빛 아래 추석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사)한국예술문화복지사 부산지회 러브뮤직이 주관하여, 참여자·보호자·직원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따뜻한 추석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행사는 식전 난타와 색소폰 연주로 흥겨운 분위기 속에 시작되었으며, 팝페라·오카리나·창작가요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고, 즉석 가위바위보 게임과 신나는 무대가 더해져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이 함께 자리해 따뜻한 격려 인사를 전했으며, 마지막으로 '해운대 남진' 전찬영 가수의 열정적인 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는 사회사업팀 김지헌 팀장의 인사로 마무리되었고, 다음 날 진행될 추석행사에 대한 안내도 이어졌습니다. 음악을 통해 함께 웃고 소통한 이번 추석음악회는 모두에게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 해피秋게더. #02

# 전통놀이와 체험 한마당 (10.02)

10월 2일(목), 9층 소망정원에서는 '해피秋게더 2. 전통놀이와 체험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직원 모두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명절의 즐거움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원에서는 비석치기, 딱지치기 등 추억의 민속놀이와 블라인드 박스 맞추기, 캘리그라피 체험이 진행되어 웃음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손끝으로 느끼는 긴장과 설렘 속에서 서로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 한쪽에서는 '행복사진 전시회' 촬영이 진행되어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들을 담았습니다. 이날 모든 참여자에게는 경품 추첨을 통해 작은 추석 선물도 전달되었구요.

전통놀이와 체험, 그리고 함께 웃는 순간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그야말로 '함께라서 더 따뜻한 한가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 해피秋게더. #03

# 행복사진 전시회 (10.13~24)

지난 2일 추석행사 날 9층 소망정원사 날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들로 5층 치료실 복도에 소소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 나행러닝크루 그리고 다시 함께한 부산바다마라톤 (10.26)



직장의 러닝크루, 나행러닝크루!

'직장의 러닝모임'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모임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 직장 생활의 의미를 더하고 건강한 삶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이 넘게 꾸준히 달려온 '나행러닝크루'는 단순한 동호회를 넘어, 서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는 멋진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가을에도 우리 크루는 변함없이 바다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는 크루원뿐 아니라 병원 직원과 가족들까지 함께하며, 한층 더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달리고,
함께 웃으며,
건강과 연결의 의미를
다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 우리는 가족입니다.
## 10월의 신규입사자


재활간호팀(5W) 이혜원 간호사


재활간호팀(8W) 안유진 간호사


재활간호팀(6W) 김영서 간호사


내과내시경팀 문채영 간호사

멀리서 빈다

- 나태주 -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 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 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 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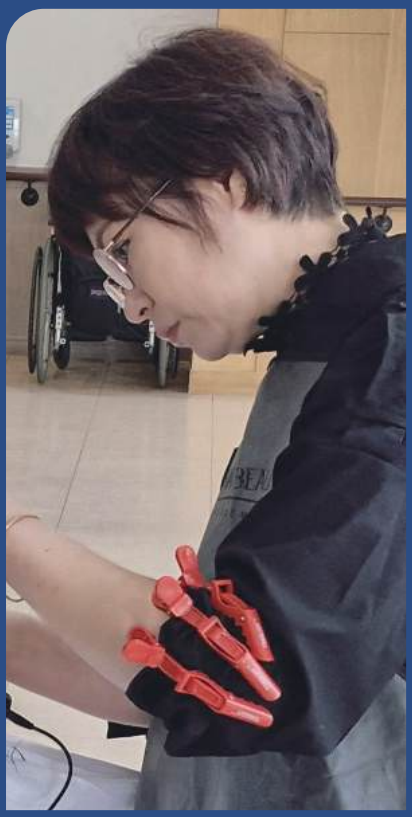

## 생명나눔실천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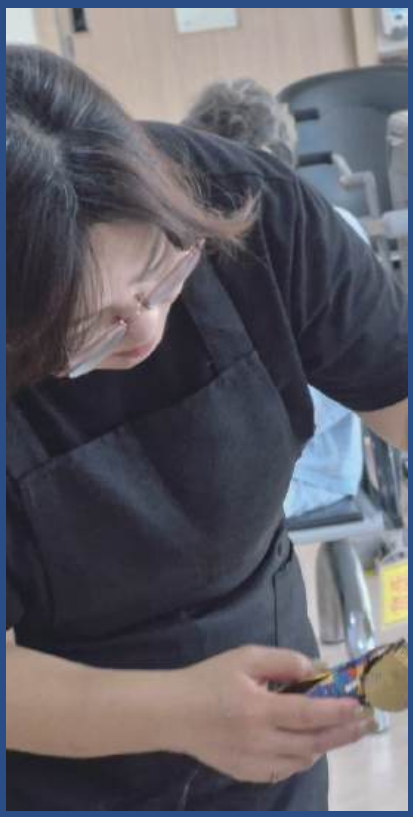
# '김○○ 참여자' 치료비 전달식 (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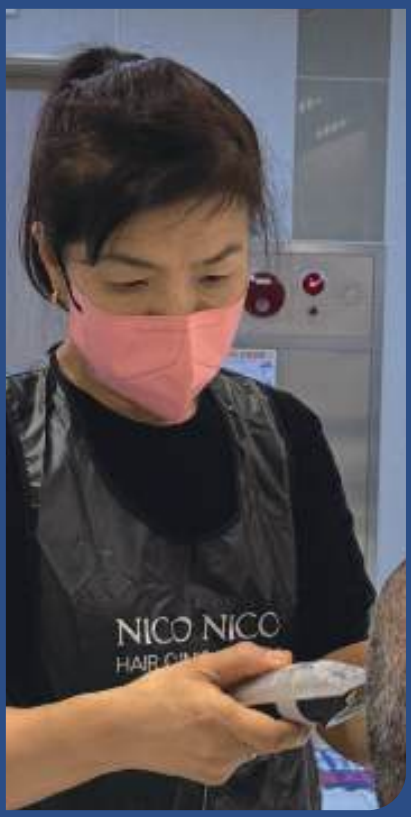
김○○님은 저소득층으로 민간보험이 없어
병원비를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지원사업에 10월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비(250만원)를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병원비 부담 완화로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미용 서비스 (10.21 / 10.24)








매월, 소중한 이미용 자원봉사자분들이 병원을 찾아와 참여자분들께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병실 안에서의 생활은 종종 단조롭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정성 어린 손길로 머리를 다듬고 난 후에는 환한 미소와 함께 마음까지 밝혀지는 따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번 달에도 네 분의 자원봉사자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고, 그 따뜻한 손길 덕분에 82명의 참여자분들이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단순히 머리 모양을 다듬는 시간을 넘어,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능을 나눈다는 것은 기술의 나눔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매달 잊지 않고 병원을 찾아와 따뜻한 마음으로 참여자분들께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시는 자원봉사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주요정책 정기배송

(by 조직문화성장실)

알아두면 좋은 정부정책을
**알 기 쉽 게**
새롭게 바뀌는 해나행 제도와 소식을
**상 세 하 게**

**교육정책**

## 부산디자인진흥원 연계 교육 프로그램 안내

"한눈에 들어오는 프리젠테이션 디자인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나요?"
"피그마, 많이들 쓰던데 배워보고 싶어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고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해나행도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들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디자인과 영상제작 관련교육이지만
프리젠테이션 디자인, AI활용법, 피그마 및 노션 등 업무도구 활용법 교육도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장소 :** 부산디자인진흥원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 **교육기간 :** 과목당 1일~5일
▣ **교육비 :** 전액무료
▣ **신청방법 안내 :** 회원가입-교육신청-소속기업 확인후 승인
▣ **현재 진행중인 교육 :** https://hrd.dcb.or.kr/sub03_02.php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훈련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상과정] Firefly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 교육기간 : 2025-10-29 ~ 2025-10-30
- 신청기간 : 2025-09-15 ~ 2025-10-24
- 훈련기간 : 2일, 360분 (180분/1일)
- 교육시간 : 수(19:00~22:00), 목(19:00~22:00)

신청중



**[향상과정] 한눈에 들어오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 교육기간 : 2025-10-30 ~ 2025-10-30
- 신청기간 : 2025-08-29 ~ 2025-10-27
- 훈련기간 : 1일, 360분 (360분/1일)
- 교육시간 : 목(10:00~16:40)

신청중




**[향상과정] 영상편집을 위한 프리미어 활용법**
- 교육기간 : 2025-11-10 ~ 2025-11-24
- 신청기간 : 2025-10-01 ~ 2025-11-05
- 훈련기간 : 5일, 900분 (180분/1일)
- 교육시간 : 월(19:00~22:00), 수(19:00~22:00)

신청중



**[향상과정] UI 디자인을 위한 피그마 활용 실무**
- 교육기간 : 2025-11-11 ~ 2025-11-20
- 신청기간 : 2025-10-10 ~ 2025-11-05
- 훈련기간 : 4일, 720분 (180분/1일)
- 교육시간 : 화(19:00~22:00), 목(19:00~22:00)

신청중

# 다독다독의 가을 추천도서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독서동아리




## 죽여 마땅한 사람들 피터 스완슨 | 푸른 숲

정치인들이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입을 모아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이를 누군가 정말로 죽인다면 어떨까. 사적 복수는 어떤 문명국가도 허용하지 않지만, 어쩌면 많은 이들이 은밀히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피터 스완슨의 『죽여 마땅한 사람들』은 이 모호한 욕망과 복수의 환상을 파고들며, 그 속에 숨어 있는 빈틈을 드러낸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를 떠올리게 하지만 더 경쾌하고 빠른 전개로 독자를 끌어당긴다. 작품 속 살인들은 비뚤어져 있으나 매혹적이며, 독자는 그 매력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써야 한다. 이 소설은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매력을 지닌 복수의 이야기다.




##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 황인찬 | 아시아

황인찬 시인의 시집 『여기까지가 미래입니다』는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만나는 K-포엣 시리즈 24권 중 하나다. 일상의 대화와 장면들이 담담히 흘러나와 어느새 한 편의 시가 된다. 농담 같기도 하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는 사소한 말들은 서늘하면서도 진솔하게 다가와, 곱씹을수록 그 안에 진실이 숨어 있는 듯하다.
그의 시 속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자주 찾아온다. 고요함 속에서 서서히 불길함으로 바뀌는 긴장감이 발생하고, 독자는 어느새 태풍의 눈 속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도착해버린 '미래'의 풍경을 보여준다.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 올리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젊은 괴테의 격정적인 사랑과 절망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질풍노도 문학의 대표작이다. 단순한 성공작을 넘어 당시 청년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문제작으로, 서간체 형식을 통해 괴테 자신의 불행한 연애와 절망적인 사랑을 절절하게 담아냈다.
베츨라어에서 법관 시보로 근무하던 괴테는 친구 케스트너의 약혼녀 샤를로테 부프를 사랑했으나 이룰 수 없는 관계에 괴로워한다. 그 무렵 친구 예루잘렘이 사랑의 비극으로 권총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 권총이 케스트너의 것이었다는 사실은 괴테에게 더욱 큰 충격을 준다. 이 작품이 독자에게 강렬한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오! 한강 김세영 글 & 허영만 그림 | 가디언

『오! 한강』은 해방 이후부터 6·29 선언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격랑을 그린 작품이다. 민주화 시위가 치열했던 1980년대, 금기시되던 인공기와 고문 장면까지 사실적으로 담아내며 대학가 필독서로 읽혔고, 젊은 세대에게 큰 충격과 반향을 주었다.
이 만화는 분단과 대립 속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한 인물들을 통해 시대의 갈등과 비극을 드라마틱하게 펼쳐낸다. 기회주의자, 회의주의자, 지식인, 민주투사와 그의 가족, 권력자의 자녀까지—허구와 현실을 넘나드는 인물 군상은 곧 한국 현대사를 살아낸 사람들의 초상으로 다가온다.

#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스물세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 추석맞이 음식







모든 것이 풍요로운 추석이 곧 다가옴에도
치료와 회복을 위해, 병원에서 둥근달을 보며
소원을 빌 참여자분들을 위해
추석맞이 상차림을 거하게 마련해 보았습니다.

“나 이번 명절을 병원에서 보내기로 했는데, 기대해도 되죠?”
라는 질문에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며,
우리의 최선을 상차림에 표한하고자 애를 쓰며
한 끼의 식사에 정성을 다 담아내기 위한 고군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밥만 먹어도 맛나다는 영양밥에,
윤기 좔좔 촉촉한 소갈비찜을 더하고,
동태전&오색산적&동그라땡 등을 전집처럼 구워내며,
고사리&도라지&얼갈이 나물을 손맛 듬뿍 넣어 무쳐낸 후,
유과와 식혜를 예쁘게 담아 상차림을 완성하면,
우리의 고군분투가 마무리 됩니다.

‘아, 이것이 명절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둥근 보름달을 보며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나 영양팀은
한 끼의 식사에도 설렘을 느끼고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손끝으로 추억의 그 날을, 그 맛을
식탁 위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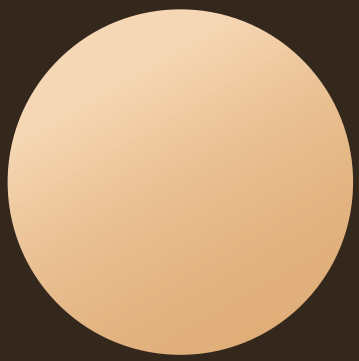
언제든지 추억을 요청해 주세요.



#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10.02)

## 몸도 둥글둥글 마음도 둥글둥글



한가위 둥근 보름달처럼
몸도 둥글둥글
마음도 둥글둥글
세상도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것에 큰 일조를 하고자ㅎㅎ
추석맞이 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매콤짭짤한 치킨 스테이크에
송혜교 다이어트 샐러드로 유명한 두부샐러드,
사이드 메뉴의 끝판왕 콘치즈와,
약과 마카롱까지...

'이 조합 끝내주는데?'라는 생각이 드시겠죠?ㅋㅋ
'맛 또한 끝내주는데?'가 되도록
모든 에너지를 쏟아 보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모두 둥글둥글해져 있기를...
오븐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점심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 클래식 좋아하세요?

**결국 문에서 문으로의 여정을 통해 넓어집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평생 클래식 음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 클래식은 그저 듣다 보면 졸음을 유발하는 '수면유도 사운드' 정도였다. 중학교 음악 시간에 억지로 듣던 기억이 전부였다. 작곡가 이름은 외워도 금세 잊었고, 그 이름들이 왜 중요한지도 몰랐다. 그러니 클래식을 좋아할 리 없었다. 팝송도 잘 모르고 듣지도 않았다.트로트는 좋았고, 발라드도 좋았지만, 내 인생의 BGM은 언제나 힙합이었다. 가사에 숨어 있는 라임의 묘미가 그렇게 중독적일 수가 없다. 그런 내가 "클래식 좋아하세요?"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될 줄은, 정말 인생의 물음표다.

2020년 여름, 예나 지금이나 엉뚱한 도전을 좋아하는 나는 어느 날 새벽, 벽돌책《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손글씨로 필사하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대학 노트에 몇 줄씩 옮겨 적던 중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지?'

세계사에 무지했던 나는 그 단어 하나에 꽂혀, 그날 저녁 곧장 도서관으로 달려갔다.《곰브리치 세계사》를 빌려 읽었는데, 이게 웬걸, 너무 재미있는 거다. 그렇게 세계사 책을 두세 권 읽다가 서양미술사로, 다시 클래식 음악 책으로, 그리고 어느새 유튜브로 이어졌다. 음악이니 음원이라도 들어볼 겸 유튜브를 켰다가, 우연히 '저작권 없는 무료 클래식 음원 사이트'를 발견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걸로 나도 유튜브 해볼까?"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느낌표였다.

>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당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어차피 세상은 준비된 대로 시나리오에 맞춰 움직여주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못하는 게 당연하다. 당연한 것이다. 당신은 지금 처음 겪는 일이니까.
> _이시은《오랜 시간, 다정한 문장》(위즈덤하우스)

2021년 봄,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새벽의 필사는 사라지고, 대신 새벽의 영상 편집이 시작됐다. 무료 클래식 음원을 내려받아 영상에 붙였지만, 막상 업로드하니 저작권 경고가 줄줄이 날아왔다. '무료라며...!'라며 당황했지만, 그때부터 음원을 하나하나 직접 골라가며 '주차별 태교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후엔 'OOO 할 때 듣기 좋은 클래식' 같은 시리즈를 만들어 이것저것 섞고, 지지고, 볶고, 흔들며 꾸준히 업로드했다.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이라는 수익 조건을 3년 안에 채우는 게 목표였지만, 뜻밖에도 '첼로 클래식 모음' 영상이 떡상했다. 조회수 50만! "이제 나도 수익 창출 가능하단 말인가?" 희망이 정확히 인용부호 안에 들어온, 그 순간은 내 인생의 따옴표였다.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익 창출 신청 결과는 '채널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이유는 '재사용된 콘텐츠'. 한마디로 "너, 너무 남이랑 비슷해."였다. 이의 신청을 하면 4주 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신청했지만, 답변은 늘 같았다. "재사용된 콘텐츠입니다."

"재사용된 건 내 열정이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오해받을 만한 영상들을 하나씩 지웠다. 결국 50만 뷰의 첼로 영상까지 삭제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구독자 5,500명을 눈앞에 두고, 내 열정은 바닥을 찍었다. "그럼 그렇지..." 그게 나의 열정의 마침표였다.

3년 동안 겨울잠을 자던 유튜브 채널이 올봄 다시 깨어났다. 이번엔 명화와 클래식 음악을 엮어 새로운 포맷으로 천천히 올리고 있다. 이젠 수익 창출이 목표가 아니다. 그저 오랜 시간 함께한 '정(情)' 때문에 다시 해보는 것이다.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나는 뭘 잃었을까? 시간? 노력? 열정? 생각해보면, 잃은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아주 얕게나마 클래식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 이젠 웬만한 작곡가 이름은 다 알고, 대표곡 몇 개쯤은 입에 붙었다. 자동차 안의 플레이리스트에도 '클래식 TOP 100'이 슬쩍 들어와 있다. 아이들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클래식 맞히기 게임을 하면, 제일 먼저 "아버지!"를 외친다. 그럴 때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진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어집니다>

# 홍보팀장의 '브런치' 마흔두 번째 이야기

##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때 떠오르는 곡 드보르자크의 〈신세계로부터〉 4악장이다. 어릴 적 영화 《죠스》에서 상어가 등장할 때 흘러나오던, 그 긴장감 넘치는 곡.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바바바~" 그 리듬 뒤로 터지는 웅장함은, 무언가에 도전할 때마다 나를 밀어주는 음악이다. 새로운 세계로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의 기분과 닮아 있다.

> 한 사람의 지적 영역은
> 결국 문에서 문으로의 여정을 통해 넓어진다.
> _유병욱《인생의 해상도》(알에이치코리아)

필사에서 출발해 세계사, 서양미술사, 클래식, 그리고 유튜브로 이어진 내 여정도 그런 것 같다. 인생에는 버려지는 노력이 없다. 오늘 찍은 점이 내일은 어떤 선으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을 믿으면 힘이 생긴다. 결국 인생은 '문에서 문으로의 여정'이니까.

깊어가는 가을,
끝나가는 2025년.
나는 또 어떤 점을 찍고,
어떤 문을 열게 될까?

P.S. 요즘 (혼자) 고민 중이다. 다음 달 소식지에 '클래식 좋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한 곡씩 소개하는 글을 연재해볼까 쓸데없는 고민을 사서 한다. 살짝 겁도 난다. 괜히 "매달 쓴다!" 해놓고, 매달 머리 싸매며 "내가 미쳤지!"라고 후회할까 봐.^^

혹시 카카오워크 전체 톡방에서 이 글을 읽고 연재를 원하신다면, 엄지척 👍 이모지를 눌러주세요. 100개가 넘으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다음 달부터 연재 시작합니다. (설마 100개 넘겠어요... 관세음보살. ㅋㅋㅋ)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제41호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5년 10월 31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